

# John Galliano 컬렉션의 패션메이크업에 나타난 통속성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The Popularity depicted on Fashion Make-up in John Galliano's Collection

Ae-Ran Ja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7. 4. 20 투고)

### ABSTRACT

Affinity between a creative and experimental fashion design and a Fashion Make-up expressed in John Galliano's Collection was analysed to examine the harmony between Beauty and Fashion. This approach may establish the link between the Fashion Make-up analysed in view of Aesthetic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 fashion design that a fashion designer pursues. The Fashion Make-up plays a significant role to express a relevance to a design spirit because it is a visual text that a audience faces easily in a collection leading the style. Under the proposition that collection is understood as a popular culture as the fashion is preferential and popular, the Fashion Make-up can be analysed in the aspect of aesthetics. The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popularity of popular culture, such as the comic, the erotic, the fantastic and the sentimental are used to analyse and interpret the Fashion Make-up. The fashion design and Fashion Make-up with one characteristics or combined ones showing uniqueness in the popular culture are compared and analyzed.

Key words: fashion make-up(패션메이크업), popularity(통속성), the comic(웃음의 해학성), the erotic(성의 관능성), the fantastic(몽상의 환상성), the sentimental(눈물의 감상성)

## I. 서론

아방가르드 예술이 비록 엘리트적이고 비대중적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실험정신은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하는 아방가르드의 원리가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중매체는 그 존립을 위해 대중들을 자극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표현방식을 위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예술형식과 이미지들을 아방가르드에서 차용하고 있다. 그 예로 패션쇼<sup>1)</sup>(세계4대 컬렉션)를 들 수 있다. 컬렉션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새로움을 갈망하는 대중을 위해 타 장르와의 유기적인 접목과 실험적인 형식으로 유희적인 메시지와 이미지 전달에 주력하고자 더욱 창조적인 양상으로 시도되고 있다. 더욱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의 등장은 패션의 질서 속에 예술을 종속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계적인 예술이 해체됨은 물론 과장된 독창성과 스펙터클한 쇼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sup>2)</sup>에서 현대사회에서의 패션이 대중적이면서 취향적인 것이므로, 대중문화의 특성과 상호 연관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컬렉션 역시 이 시대의 대중문화임을 규명해주었다. 다시 말해서 예술성을 강조하는 컬렉션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원화된 현대인의 오감 충족은 물론 심미적 만족을 동반한 대중문화적 보상기능을 하며 또한 취향문화를 향유하게 해줌으로써 대중문화의 실천인 오락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갈리아노(John Galiano) 역시 영국의 보수적인 전통과 권위적이며 해체적인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이 혼재된 디자인을 역사주의와 로맨티시즘을 주 테마로 하여 현대인의 오감을 자극시켜주는 컬렉션을 여전히 기획하고 있다. 문화와 대중간의 융합 등이 함축된 디자인을 선보인 컬렉션에서는 실험성이 강하고 획기적인 디자인이미지뿐만 아니라 메이크업도 실험성이 강한 예술적 표현으로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패션메이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더불어 패션메이크업도 미적표현이 가능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주었다고 사려된다. 그 이유는 최근 갈리아노를 비롯한 실험성이 강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구성을 보면, 바로 컬렉션이 트렌드 메이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하이패션과 뷰티스타일이 혼연일체가 되어 표현되고 있으므로, 패션메이크업의 의상과의 연계성을 표현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대패션에서 메이크업의 역할은 결점을 감추고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목적이외에도 개인의 이미지 및 의상과의 동질성을 표현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 이에 메이크업이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과 재료에 제한 없이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내적 의미와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메이크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메이크업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고찰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새로운 시각에서의 내적의미와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패션메이크업에 대한 연구는 물론 패션디자이너의 의상디자인에 관한 미적 특성과 그에 따른 메이크업과의 동질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메이크업이 패션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미적 특성과 연계성이 있는지의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갈리아노의 컬렉션에서 표현된 창조적이며 실험성이 강한 의상디자인과 패션메이크업의 영역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뷰티와 패션의 적절한 조화를 규명한다면 메이크업도 예술적으로 다양한 미적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분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사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패션이 대중적이며 취향적인 것이므로 컬렉션도 대중문화임이 규명된 전제하에, 대중예술의 다양한 접근방법 중 통속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패션메이크업을 대중예술의 미학적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더욱 포괄적인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중예술이란 통속성이 중심을 이루는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대중예술이<sup>3)</sup>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중예술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는 컬렉션에서의 디자인 분석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패션메이크업을 통속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메이크업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려되어 이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1차적으로 컬렉션에서 표현된 패션메이크업분석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먼저 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다. 2차적으로는 패션메이크업의 표현기법 고찰 및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sup>4)</sup>에서 규명한 갈리아노의 디자인특성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컬렉션에 표현된 패션메이크업을 통속성의 미적인 하부 개념으로 유추함으로써 의상 디자인특성과 패션메이크업의 연계성을 재규명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통속성의 개념

레이 브라운(R. B. Browne)에 의하면, 대중문화(popular culture)란 엘리트문화를 제외한 사회 전체층의 모든 하부문화를 포괄한 개념으로써<sup>5)</sup>, 일반적인 연예 오락물, 화려한 흥행물(spectacles), 음악, 책, 영화와 같은 대중적인 문화 산물이나 행위를 가리키지만,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의 전형적인 내용물 특히 허구적이고 극적인 오락물과 동일시되어 왔다.<sup>6)</sup> 데니스 맥퀘일(Dennis McQuail)도 대중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통속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일체의 산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에이브라함 캐플란(A. Kaplan, 1966)은 「대중예술의 미학(The Aesthetics of the Popular Arts)」에서 통속적 취향, 도식성, 모호함의 거부, 새로움과 관습의 조화, 감상주의, 도피주의, 보상심리, 유치함 등과 같은 대중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해부함과 동시에 대중예술의 체험은 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데이빗 매든(David Madden, 1973)은 「대중예술의 미학의 필요성(The Necessity for an Aesthetics of Popular Culture)」에서 캐플란의 이론을 반박하였

다. 즉, 대중예술의 미학이란 전통미학의 개념장치를 적절하게 대중예술의 체험영역 속으로 전용하여 대중예술의 통속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대중예술의 미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미학의 세계를 의미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중예술의 체험을 일관적인 하나의 개념체계로 환원시킨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급예술의 진지성과 짝을 이루는 하나의 미적 범주로서 대중예술의 통속성의 미적 가능성을 중요시한 것이다.

따라서 대중예술을 특징짓는 통속적인 것의 성격은 통속적인 것과 진지한 것이 서로 한 쌍이 되어 미적 범주로서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중예술 또는 고급예술이라 불리는 문화 산물들은 비록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신의 분류 범주<sup>7)</sup>에 상응하는 지배적인 속성들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것이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므로 박성봉(1995)의 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 접근에 의하면, 대중예술로부터 체험한 통속성의 범주에는 웃음의 해학성(the Comic), 성의 관능성(the Erotic), 폭력의 선정성(the Sensational), 몽상의 환상성(the Fantastic), 그리고 눈물의 감상성(the Sentimental) 등 다섯 가지의 주요한 특징적 요소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예술로부터 체험하는 그 특징들은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런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떤 식의 구성에 의해 함께 기능하며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특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중예술의 통속성이라는 영역에서는 그 자체의 고유한 논리에 따른 다섯 가지 주요한 특징적 요소의 합목적적인 조합을 말하며, 이를 통속성의 하부 범주라 한다. 예를 들면, 찰리 채플린의 「도시의 등불」, 「더 키드(The Kid)」 같은 작품에서는 옆치락뒤치락 무성영화의 웃음과 눈물의 미묘한 결합, 007 제임스 본드 영화의 섹스와 폭력의 초특급 과장 결합 등에서 통속성의 특징적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웃음, 성, 폭력, 몽상, 눈물과 같은 요소의 적절한 조합은 무엇보다도 이야기에 의해 완성되므로, '이야기'가 진지한 예술과 비교되는 통속적인 예술의 가장 구별되는 특질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따라서 통속성의 범주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주요한 특징적 요소는 그 자체로 상당히 극적인 또는 극단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특징들 각각의 생명력을 살리면서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 효과적인 통제가 바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통속성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특징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이야기 수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자극하고, 일단 이러한 자세가 형성되었을 때 그 자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끔 고안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대중예술의 이야기는 이 요소들의 역동적 조합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통속성의 범주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특징적인 요소의 구성논리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특정한 공통적 체험영역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구성논리는 대중예술의 특정 체험영역으로서 통속성의 체험에 관한 분석을 정당화한다. 구체적으로 웃음, 성, 폭력, 몽상, 눈물의 주제적, 객관적, 관계적, 기능적 측면은 전체적인 대중예술 특정 체험영역의 주제적, 객체적, 관계적, 기능적 측면과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예술의 특정 체험영역은 구체적인 체험들 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리아노의 컬렉션이 주로 극적이고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연극적인 기법에 의한 이야기

전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속성의 범주 다섯 가지 특징적 요소 중 웃음, 성, 몽상, 눈물 등 네 가지의 특징적 요소들이 단독 혹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짐을 분석함으로써 의상디자인과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규명하도록 한다.

## 2. 패션메이크업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미적 본능을 위한 원초적 표현 중의 하나가 바로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은 인체를 기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되면서 발전되어왔다.

메이크업이란 용어는 16세기까지 세익스피어 희곡 중에 '페인팅(Painting)'이란 말로 잠시 언급되었을 뿐 메이크업 색상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대중적이지 못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 영국 시인 리처드 크라슈(Richard Crashou)가 "메이크업이란 여성의 매력을 최대한 높여주는 행위"라 하여 최초로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대중에게 확산되지 못하였고, 비로소 20세기의 할리우드 전성시대에 맥스 팩터(Max Factor)가 '메이크업'이란 용어를 대중화시켰다.

메이크업은 물리적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물리적 기능은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제품으로 인한 외형적인 미화효과와 변화를 의미한다. 심리적 기능은 분장이나 캐릭터 메이크업(Character Makeup) 시술시 인물의 성격묘사를 위한 기능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추구의 방향을 그대로 표현하

<표 1> 통속성의 하부범주

특정적 요소		하부범주	구성논리	특정적 요소들의 조합
웃음	난센스, 폭소, 앞치락뒤치락, 일이 빠져있는 사람들의 세계	⇨ 해학성	주제적 ⇨ 객관적 ⇨ 관계적 ⇨ 기능적	
성	정열, 키스, 강간, 스트립쇼, 성행위, 열려진 속옷 또는 검정 실크스타킹 등의 세계	⇨ 관능성		
폭력	피, 공포, 테러, 복수, 폭력, 재앙 또는 죽은 자들이 떠다니는 세계	⇨ 선정성		
몽상	매혹, 경이, 몽상, 마법 또는 항상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세계	⇨ 환상성		
눈물	달콤한 고독, 흐느낌, 통곡, 향수, 흐물거리는 눈시울 또는 눈물에 젖은 손수건이 춤추는 세계	⇨ 감상성		

는 것이다.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관습이나 예의의 표현이고, 신분이나 직업의 표시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무언의 의사전달을 의미한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의상과 메이크업의 연계성 재규명을 위해 메이크업의 역할 중 심리적 기능이 주로 표현된 패션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광의의 패션메이크업이란 메이크업에 유행에 의한 패션성을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토탈 패션의 요소로써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다.<sup>10)</sup> 그리고 패션메이크업은 가장 쉽게 눈으로 접할 수 있는 텍스트로써 유행을 예견할 수 있

는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이란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패션메이크업은 20세기 후반부터 사회 문화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가 반영됨은 물론 예술 전반에 보이는 표현의 무제한성을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에 이용됨으로써 미적가치의 표출 가능성에도 의미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컬렉션에서의 패션메이크업은 의상에 따라서 색과 선의 결정, 무대크기와 관객과의 거리 고려, 조명에 따른 효과도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협의의 스테이지 메이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쇼에서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상 컨셉이나 주제에 부합하는 컨셉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부분이 바로 의상과 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컬렉션에 나타난 메

<표 2> 갈리아노의 디자인 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

디자인 이미지		패션메이크업	
		메이크업	표현기법
역사적 ·낭만적	·과거양식의 현대적 재해석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을 지향 ·미완성인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차용(동화의 세계처럼 감미로움에 대한 동경, 영원한 소녀의 느낌으로 미성숙의 감각) ·성적 노골화로 인한 에로틱 이미지	·새드니스(sadness)식 ·화이트(white)식 ·데카당트(decadent)식 ·섹시(sexy)식	·역사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에 이문화적인 요소를 병치시켜 시간, 공간의 해체, 절충 동시에 표현 ·귀엽고 소녀다운 미성숙한 느낌 표현
유희적	·기대된 것과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의외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극복되면서 유발된 웃음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비정상성, 지나침과 과장의 의미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효과 ·다른 문화 이미지 차용	·그로테스크(Grotesque) 식	·이질적인 소재 사용, 부조화로 인한 기이함과 유머러스함을 표현 ·협오스럽고 반항적이고 끔찍한 괴기감을 형성하는 이미지 등을 표현 ·키치적 요소, 기계적 요소, 동물적 요소, 악마적 요소 등 도입 ·일상적 규칙위반 ·이질적 요소 도입, 모방, 과장, 변형, 모순, 부조화
동양적	·동양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 혼합, 과장, 왜곡, 변형 ·신비, 요염, 동양적 표현 ·차극적, 정적인 이미지로 샤프 하게 표현 ·일본문화의 영향	·가부키식 ·경극식	·흑, 백, 적의 메이크업으로 일본의 가부키화장과 중국의 경극화장에서 유래, 차용
원시적	·소수민족의 문화도입, 다양한 문화의 소재 혼합 ·민속의 특유성 표현 ·어린이와 같은 유아적 이미지, 에로틱한 이미지, 밝고 경쾌한 이미지 ·민속의 특유성 표현(에스닉)+기교적이고 기술적인 미래지향적 변형을 가하는 것	·에스닉(ethnic)식 ·화이트(white)식 ·팝아트(pop art)식 ·에스노(ethno)식	·쇠붙이 소품으로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국적인 모습 ·과거에 사용되었던 색채에 현재의 테크노 감각 과 어우러진 새로운 절충적 모드를 표현

이크업의 경향이 주제에 부합하는 메이크업인지에 더욱 초점이 모아지게 되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에서부터 아티스틱한(artistic)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프 쿠티르 컬렉션의 메이크업은 대체적으로 오프 쿠티르가 갖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느낌을 살려 귀족적, 우아함, 고풍격, 정적, 복고적 이미지로 피부표현은 밝게, 라인 메이크업을 강조하고 여성스러움을 표현한다. 반면, 프레타 포르테는 기능성을 강조한 패션인 만큼 실용적, 모던함, 동적, 도회적 표현으로 베이스는 피부톤과 유사하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한다. 색조화장 또한 특별히 색을 강조하지 않는 브라운 샤콜(Brown Charcoal) 계열, 그레이 계열, 베이지 브라운 계열을 위주로 사용하고 눈은 강조, 입을 약화시키는 형식으로 세련미를 강조하는 패턴이다. 더불어 컬렉션에서 표현된 메이크업은 기존의 화장품이외에 다양한 소재 결합과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메이크업 컨셉에 장식성과 극적 효과를 주어 더욱 자유롭고 입체적인 형태 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갈리아노의 디자인 이미지<sup>11)</sup>와 패션메이크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로 요약해볼 수 있다.

### Ⅲ. John Galliano 컬렉션의 패션메이크업에 나타난 통속성 분석

#### 1. 웃음의 해학성

막스 이스트먼(M. Eastman)<sup>12)</sup>은 우스꽝스러움의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힘에는 악의에 찬 비난 또는 그런 성격의 관심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즉 유희적인 재미(having playful fun)를 찾으려는 관심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대중예술의 우스꽝스러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유희적인 재미에 대한 관심은 '비웃는 웃음'뿐만 아니라 '함께 웃는 웃음'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비웃는 우리 자신과 함께 웃는' 아

니면 '우리 자신을 비웃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웃는' 등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웃음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약점, 결함 그리고 엉뚱함을 비웃을 때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중예술에서의 웃음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의미하므로,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통속적인 웃음의 다양한 모습을 포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중예술에서의 우스꽝스러움은 서커스의 어릿광대 차원인 것이다. 즉, 대중예술에서의 웃음 체험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것이며, 인간의 내면에는 웃음을 자주 체험하고 싶은 부정할 수 없는 내적 충동을 느끼게 되므로 대중예술에 관한 한 웃음의 주위에는 항상 무엇인가 통속적인 것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모든 가능한 우스꽝스러운 불일치(ludicrous incongruity) 속에서 자극과 정서의 뒤흔들림을 즐긴다. 이런 의미에서 우스꽝스러운 것의 언어는 기대와 놀라움 사이의 어떤 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긴장의 변형에 근거하는 부조리함의 논리상에 있다.

이런 구성논리 하에서 갈리아노는 자신이 느끼는 통속적인 웃음을 풍자와 유머를 통해 자신의 돈키호테적 방식으로 놀이적이며 우스꽝스러운 디자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즉 풍자와 같은 예술표현기법을 통해 현대인생활 특히 사회의 모든 부조리, 악행 등을 지적하고 조소하는 암시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유머와 같은 예술표현기법을 통해 일상의 규칙 위반,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타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 등으로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갖게 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속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디자인특성과 유사한 연계성이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패션메이크업을 웃음의 해학성이라 정의한다. 패션메이크업의 웃음의 해학성은 기대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역동적인 긴장의 변형에 근

거한 부조리에서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을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의 해학적 표현에 의해 극복되면서 유발된 웃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어른세계의 경직되고 긴장된 역할에서 벗어나 어린시절에 대한 향수로서 동심의 세계와 환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해방의 감정 표현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의외성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콜라주기법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에서는 주로 종이류, 인조보석류, 패브릭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눈썹, 속눈썹, 입술의 형태를 과장하여 극단적으로 묘사하거나 장난스럽고 유아적인 형태의 연출, 또는 유머러스한 기호와 문양을 부착하거나 꽃, 나비, 채소 등의 자연물 형태를 앗상블라주함으로써 경직된 실제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유희충동의 발산으로 해방감과 의외성을 통한 미적 쾌감을 유발한다.

## 2. 성의 관능성

인간의 문명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에 부과된 성적 제약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기인하든 또는 일종의 변태적인 행태에 의한 것이든, 문명의 입장에서 성적 생활을 제한하려는 경향은 인간의 문화적 이상을 더욱 철저히 확대시키려는 다른 경향들만큼이나 분명하다. 예를 들어,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sup>13)</sup>에 의하면 문명은 원시적 본능이 포기된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대한 인간 공동체 창조란 마치 개인들의 행복이 배려되지 않을 때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바와 같이 문명화된 사회의 문화적 요구와 개인들의 충동적 요구 사이의 갈등을 꿰뚫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다양한 성적 꿈들이 현실화될 수 없음과 동시에 성적 경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성적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강렬한 체험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항상 도전적이고 만만치 않은 긴장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인간의 성생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의 느낌은 에로티시즘(eroticism)이라는 통제된 자기 탐닉을 위한 일련의 기술적 처리방식들을 야기하는데, 이 방식들에 의해 성에 부

과된 개인적이며 문화적인 제한들을 강렬하고 극적인 에로티시즘의 분위기로 몰아가게 된다. 이처럼 대중예술의 창조와 감상의 맥락에서 강렬하고 극적인 에로티시즘의 대기권이 도처에 편재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의 관능성이 대중예술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되며, 진지한 관점에서 에로티시즘을 조명한 경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계몽적인 성적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게 된다. 한층 더 나아가 관능의 해방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해방의 첫걸음이라고 한 것은 관능적인 것이 다른 이들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성취하려는 성적 에너지(libidonal energy)의 방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해방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즉, 대중예술의 관능적 체험을 위한 출발은 가슴, 다리, 또는 하복부 등 인간 육체의 노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대중예술의 관능성은 금지된 장면들에 의한 인간의 말초신경 자극도 해당되며, 특히 성적 흥분의 직접적이고 즉발적인 상태를 창조하는 능력 때문에 대중예술의 관능적 체험은 주로 일상의 시선을 지배하는 관음주의나 자위적인 몽상 또는 변태적 쾌락주의 문제가 파생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예술의 관능성은 성행위라기보다는 성에 관한 인간의 생각이라는 모라브스키(Morawski)<sup>14)</sup>의 기술이 적합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대중예술의 관능성은 저마다의 성적 성향의 한계 내에서 성적 상상력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삶에 붙들어 매주는 육체를 느끼게 해준다. 따라서 갈리아노는 인간의 성적 자유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성을 가시화시키는 강렬하고 극적인 에로티시즘의 디자인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면, 갈리아노가 대중예술의 관능성을 삶의 확장으로서 도피주의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특성과 유사한 연계성을 보이는 에로틱한 패션메이크업을 성의 관능성이라 정의한다. 패션메이크업의 성의 관능성은 성적 노골화로 인한 에로틱 이미지를 통속적인 여성미로 강조, 이미지는 요염하고 자극적이며, 대담하고 육감적인 연출을 위해 성에 부과된 개인적이며 문화적인 제한들을 오히려

강렬하고 극적인 기술적 처리방식으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의 의미를 내포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주로 부분적인 노출을 통해 시각적으로 강한 관능미를 자극하는 망사, 레이스 등의 패브릭 소재를 사용하여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베일형태나 콜라주기법으로 여성의 비밀과 신비로움을 에로틱하게 표현하거나 짙은 광채와 색채변화로 화려함을 더해주는 인조보석류로 장식하고, 자극적이고 불건전한 양상으로 표현된 타투 문양을 부착하여 퇴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 3. 몽상의 환상성

랩킨(E.S. Rabkin)<sup>15)</sup>에 의하면, 대중예술에서 몽상의 환상성은 이야기 세계의 기본 규율들이 갑자기 180도 회전할 때 갖는 경이의 느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환상적(fantastic)'이라는 것은 '현실적(realistic)'이라는 것과의 대립 개념, 즉 열등한 대립 개념이다. 그래서 통속성의 범주에서 몽상의 환상성을 고상한 환상성이나 진지한 환상성과는 대조적인 저급한 환상성이나 도피주의적 환상성이라는 가치 차별적인 의미로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고상한 환상성'을 거쳐 '몽상의 환상성'으로 내려가는 위계질서가 결국 실제 경우와 난센스 하더라도 대중예술에서의 환상성을 억지 겸손이나 그릇된 부끄럼을 떨지 않고 독특한 상상여행(imagination journey)의 한 방식으로 수용한다면 '몽상적(fanciful)'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과 합리주의에 의해 규정된 질서와 규율의 세계에 맞선 대중예술의 환상성은 불가능의 판단을 가능한 것의 체험으로 또는 필연적인 것의 체험으로 바꾸어 놓는다. 프란츠 로텐스타이너(F. Rottensteiner)<sup>16)</sup>에 의하면, 환상성은 기존 질서의 파괴이며, 변화 없는 일상의 범칙성 안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의 침입이라 하여 환상적인 것의 체험을 무의식의 내부적 충동들의 활성화와 결부시켰다. 즉, 환상성은 인간본성의 측면에서 잠재적,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시간과 공간, 인과성 등을 대담하게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는 기상천외한 상상력의

결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무의식의 내부적 충동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스크로빈(R. C. Schlobin)<sup>17)</sup>도 환상적 이중성<sup>18)</sup>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간은 대중예술에서 환상적인 사건들의 비합리적인 성격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양 반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예술에서의 환상적인 것은 현실에서 체험하는 환상적인 것과 거의 다른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예술의 환상성의 체험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이탈해 기상천외하고, 비합리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외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이미 내적으로 무의식에서 비롯하는 행위 유형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본성 그 자체가 환상적이라는 것이다. 환상성의 체험에서 소위 '기대의 뒤집힘(the reversal of expect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환상성에서 뒤집힘은 바로 함복적으로 기대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치밀한 계산 위에 기초한다. 더 나아가 일단 대중예술에서 환상성에 익숙해지면, 때로는 그것이 무척이나 기묘하고 동화 같아 보일지라도 그 환상성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범칙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대중예술의 환상성을 상징적 또는 신화적 의미로 장식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따라서 대중예술의 환상성은 일상적인 삶의 환상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새롭게 형성하는 자기 자신의 범칙과 일치한다. 이러한 구성 논리가 바로 갈리아노의 비정형화, 부조화, 콜라주, 과대장식 등으로 환상성의 체험 결과인 기대의 뒤집힘에서 느끼는 경이감을 동화의 세계처럼 감미로움에 대한 동경, 영원한 소녀의 느낌 등 미성숙의 감각을 표현한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갈리아노 역시 스스로 환상성의 체험을 통해 기존 질서의 파괴,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이탈해 기상천외하고, 비합리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내적으로 무의식의 내부적 충동들에서 비롯된 행위 유형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와 같은 꿈과 네오리얼리티 사이에서의 체험을 표현한 기상천외하고 환상적인 디자인특성과 유사



한 연계성이 보이는 몽상적인 메이크업을 몽상의 환상성이라 정의한다. 패션메이크업의 몽상의 환상성은 현실세상의 환상적인 것을 강화시킨 무의식의 세계, 초현실적 이미지, 미완성인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환상적으로 꿈꾸는 듯한 표현을 위해 금속류나 인조보석류 등의 소재를 얼굴에 부분적으로 콜라주기법으로 메이크업한 것이다. 그리고 미성숙한 분위기의 사랑스러우며 신화적인 의미가 내포된 환상성은 눈 주위를 밝고 투명하게 그리고 자유롭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현실세계에 대한 기대의 뒤집힘, 현실세계에서 이탈된 기존질서의 파괴, 변화 없는 일상법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드림리한 메이크업이다.

#### 4. 눈물의 감상성

해학성, 관능성, 환상성 등은 가끔 진지성이라는 통속성의 범주 차원에서 취급되어 온 반면, 감상성은 통속성의 범주 중에서 가장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철저히 배척되어오며 따라 감상성을 거짓된 또는 피부적 정서, 근거 없는 느낌, 슬픔과 비탄의 자기도취적 포즈, 달콤한 자기 연민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

‘감상성(sentimentalism)’이란 개념은 18세기 중산층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19)</sup> 18세기에 감상적이라는 개념은 인위적인 사회 관습과 무관심, 편견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전시라는 호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대중예술의 감상성은 그것이 아무리 사ibi 자의식이라 해도 결국 자기에적 자아의식의 필요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자기만이 듣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화장하면서 거울 속의 자기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이것은 감상성의 체험이 궁극적으로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페트릭 브랜틀리거(P. Brantlinger)<sup>20)</sup>의 이론에 의하면, 소외되고 자기도취적인 자아(ego)는 모든 대중매체 체험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반영되는 무한한 거울방 속에 가장 근사하고 가장 매혹적인 백일몽과 소원성취의 목적이자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물의 감상성은 인간에게 자아의 느낌을 강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하는 느낌을 야기 시킨다. 즉 카타르시스로서 죽음을 환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향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연극적 재현을 스스로 허용함으로써 굴욕적인 삶에 복수하며,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 소멸의 방식을 통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반발하는 것이다.

갈리아노는 19세기 에드워드인 시대의 스타일과 18세기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의 스타일을 현대적 해석으로 재현한 디자인을 통해 인간본능, 내적 욕구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느낌, 슬픔과 비탄의 자기도취적 포즈, 달콤한 자기 연민 등을 자기에적 자아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인에게 자아의 느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감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특성과 유사한 연계성이 보이는 새드니스한 메이크업을 눈물의 감상성이라 정의한다. 패션메이크업의 눈물의 감상성은 광택과 윤기가 없어보이도록 표현하여 우울하고 쓸쓸하게, 창백하고 그늘져 보이는 메이크업, 특히 슬픈 눈과 헝클어진 머리, 보형물을 삽입한 큰 헤어스타일, 슬픔과 비탄의 자기도취적 포즈 등에 허황된 사치스러움의 비애와 달콤한 고독의 의미가 내포된 메이크업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컬렉션에 연출된 작품들 중에서 앞에서 살펴본 통속성의 특징적 요소들의 단독 혹은 그것들의 함복적인 조합으로 구성된 작품들만을 선별하여 분석, 해석함으로써 의상디자인과 패션메이크업의 연계성을 재규명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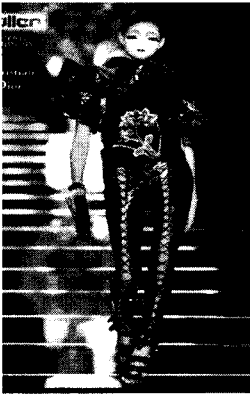
〈그림 1〉은 2003~04년 F/W Christian Dior Prêt-à-porter 컬렉션 작품으로, 동서양을 집목시킨 로맨틱 오리엔탈리즘이다. 의상디자인은 드레이프로 소매가 과장되고 화려한 플라워 모티프가 있는 중국풍 실크 블라우스와 가죽 팬츠 중앙에 파고팅(fagoting) 기법을 변형시켜 부분적으로 노출된 다리부위에서 시각적으로 강한 관능미를 자극하는 이미지로 표현되었

다. 패션메이크업은 얼굴형을 무시한 화이트 베이스의 가부키식 스타일에, 언더라인에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붙인 속눈썹, 앵두같이 작은 입술로 요염한 여성미를 표현,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을 듯한 표정의 컬러베이스의 경극식 스타일이 혼합된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면, 에로틱한 화려함과 웅장함이 다소 과장되고 장난기 어린 즐거움이 연극적인 분위기로 표현된 모습에서 에로틱하면서 눈물 섞인 웃음의 드라마틱한 결합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화이트메이크업은 에스닉한 경향이 짙은 메이크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의 권위와 우월의 상징인 화이트 색상을 밝은 미래지향적인 경향에 응용하고 있다.

〈그림 2〉는 2003년 S/S Christian Dior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이다. 의상디자인은 성적 감성과 관능성을 암시하는 광택소재를 사용하여 비정형화된 오버 사이즈 실루엣의 디자인으로, 옷의 개념과 형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옷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물론 럭셔리함도 가미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패션메이크업도 기존개념과 형식을 완전히 탈피한 의도로 눈썹을 무시하고 그 부분에 관능미를 자극하는 레이스를 붙인 후 블랙 아이라인을 그리고, 또 그 위에 레드 샤이닝을 발라줌으로써 극적인 에로티시즘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양쪽 눈 아래에는 블랙과 레드의 색상대조는 물론 한 쪽 눈에는 이질적인 요소의 다른 색의 깃털을 붙여 속눈썹을 과장, 왜곡된 추상적 표현으로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연출하였다. 더불어 립은 레드립스틱을 중앙에 바르고 그 위에 굵은 비즈를 붙여 에로틱의 반전으로 마치 희극적인 펭귄의 입술이 연상된 표현이다. 따라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면, 난센스한 웃음과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일탈해 기상천외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몽상적인 표정, 레이스 및 레드립스틱에서는 더욱 더 관능의 극적인 대조의 결합으로 해석된다.

〈그림 3〉은 2001년 S/S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의상디자인은 낡은 진을 비롯한 다양한 이질적인 소재의 과장된 혼합, 그물 바디스타킹, 노출된 가슴, 자극적인 장식 등의 파격적인 분위기 연출로, 그로테스크한 관능성이 강조된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재배치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패션메이크업은 원색으로 과장된 헤어스타일과 함께 파괴, 해체된 일그러진 형상을 표현한 메이크업에서 붉어서 괴기스러운 느낌을 주며 더불어 눈의 위아래로 그은 선은 파괴를 의미하는 선처럼 보여 마치 괴기감을 형성하는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패션메이크업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로테스크적이어서 혐오스럽고 반항적이며 끔찍스러운 괴기감을 형성하는 이미지 표현으로 오히려 미적 쾌감을 추구한 듯하다. 따라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면, 퇴폐적인 여성 이미지가 강조된 팝아트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이 보이는 에로틱한 이미지와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해 레드계열 또는 자극적인 색상으로 눈썹과 입술을 칠하고 그 위에 금색이 들어간 선들을 규칙적으로 얼굴에다 그린 패션메이크업에서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분위기의 초특급 과장의 결합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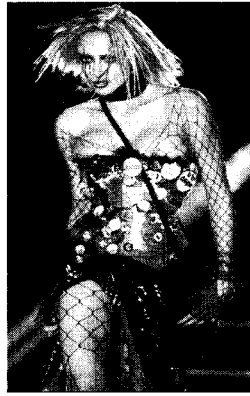
〈그림 4〉는 2004~05년 F/W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으로, 영국귀족에 대한 판타지를 표현하였다. 의상디자인의 테마는 '공주패션'으로, 엉덩이와 가슴부분은 코르셋의 과거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영국 여왕에게서 영감을 받아 궁정의 고급스러움과 격조를 대변하는 티아라도 선보였다. 꼭 끼는 허리선과 과장된 드레이프로 볼륨감을 준 소매가 달려 드레스의 환상적이고 유머러스한 엘레강스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패션메이크업은 과거의 권위와 우월을 상징하기 위해 마치 도자기처럼 새하얀 파우더를 잔뜩 바르고 가는 선으로 눈의 윤곽을 명확히 나타내고 입술 중앙에 레드립스틱을 발라 몽상적이고 나른하며 무표정한 얼굴분위기의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으로



〈그림 1〉 관능과 웃음의  
드라마틱한 결합  
Collezioni No. 95, p. 262.



〈그림 2〉 몽상과 관능의  
해학, 극적인 대조의 결합  
Collezioni No. 92, p. 401.



〈그림 3〉 관능의 초특급  
과장 Collezioni No. 81,  
p. 224.



〈그림 4〉 몽상과 웃음의  
오페라적 결합  
Collezioni No. 102, p. 179.

표현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는 달리 경쾌한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한 모습이 마치 '공주병에 걸린 공주'로, 역사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병치됨에 따라 시·공간이 해체되어 내용이 반전된 오만방자한 웃음 속에 낭만적인 요소와 사치스러움이 내포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을 몽상과 웃음의 오페라적 결합으로 해석된다. 이는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판타지 랜드 속의 모델들이 동화 속의 요정처럼 순수하고 평화로운 얼굴들로 연출된 것이 더욱 극적인 반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사려된다.

〈그림 5〉는 2004년 S/S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갈리아노는 매 시즌마다 여행을 통해 영감을 얻는데, 이 작품은 이집트 여행을 다녀온 패션전문목이라 할 수 있다. 의상디자이너는 과장된 실루엣에 밝은 색상과 메탈장식으로 빛나는 드레스로, 고대 이집트 복식의 과거양식을 응용하여 역사적 절충주의와 미문화적인 요소를 매우 과장되게 병치시킨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패션메이크업은 이집트여왕인 네페르티티 모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헤어스타일, 고대 이집트의 화장법인 녹색의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주며, 눈썹의 좌우대칭 구조가 파괴된 형태의 검은 눈썹을 그려 넣은 해학적이며 드라마틱

한 표현을 하였다. 또한 고대 이집트의 영혼불멸의 상징으로 반지, 펜던트, 인장, 부적 등에 애용되었던 상징적 모티브인 신성풍뎅이를 장식하여 더욱 극적인 화려한 효과를 연출하였다. 따라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면, 주술적 기능, 장식적 기능 및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보호기능을 가진 이집트의 코울 화장의 도입과 절충에 대한 재배합, 기존질서의 파괴, 과장, 시간과 공간을 대담하게 현대적이고 갈리아노식으로 해석한 디자인이미지를 기상천외한 상상력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징적이고 신화적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6〉은 2004년 S/S John Galliano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19세기 에드워드 시대의 과거양식을 패스티쉬한 것으로, 드레이프로 양쪽이 아닌 한쪽 어깨를 비대칭으로 처리하였고, 코사지와 새틴리본장식으로 구성된 초현실적인 미니드레스의 환상적이고 유머러스한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그리고 움푹 파인 눈, 우스꽝스럽고 풍자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보형물을 삽입하여 변형된 업스타일을 형클어지게 연출한 패션메이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쇼맨 쉽의 대가인 갈리아노가 도자기처럼 창백한 이미지의 과거양식을 모방하여 이상야릇하고 새롭게 표현한 것을 보면 메이크업도 더욱 더 재미있고 섹시하게 연출될 수 있음을 규명해주고



〈그림 5〉해학과 몽상의  
신하적 결합  
Collezioni No. 99, p. 191.



〈그림 6〉해학과 감상의  
반전된 결합  
Collezioni No. 98, p. 226.



〈그림 7〉환상과 해학의  
과장적 결합  
Collezioni No. 92, p. 411.



〈그림 8〉관능, 해학과  
환상의 관계적 결합  
Collezioni No. 75, p. 179.

있다. 즉 어릿광대처럼 마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자아내기라도 하듯이 굵은 눈물 자국이 흘러내리는 모델의 눈 화장과 밝은 립스틱 등에서 슬픔감상에 빠진 에로틱한 자기 연민을 과시하듯 울기에는 멧쩍은 모습이 코믹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7〉은 2003년 S/S John Galliano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이다. 갈리아노는 에스닉한 디오르의 이미지를 광택 요소로 표현함으로써 럭셔리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메이크업에 비즈를 접착한 것, 피날레에서는 다량의 금색종이를 뿌려 컬렉션을 빛나게 마무리한 것, 팜플렛조차도 골드 톤으로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다. 의상디자이너는 양성적인 패턴의 초미니 드레스와 골드 톤의 비정형화된 오버사이즈 재킷의 과장된 소매와 칼라, 타조 털 트리밍의 과잉장식 등으로 일상규칙이 위반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으로 갈리아노의 상상력과 공상적이며 비현실성이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패션메이크업은 몸 전체에 네이비블루 컬러로 페인팅한 후 이마에 골드 비즈와 컬러플한 비즈를 부착하였고, 입술은 레드계열의 비즈로 입체감을 살려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따라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면, 골드 톤의 재킷과 컬러플한 비즈 등으로 눈썹, 입술 등을 극단

적으로 과장한 것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의외성과 현실세상을 환상적인 것으로 강화하여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환상과 해학의 과장적 결합으로 해석된다.

〈그림 8〉은 2000년 S/S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의상디자이너는 서로 다른 소재를 비대칭으로 이어붙인 듯하게 처리된 스커트 라인에서 성적 노골화로 인한 에로틱 이미지와 화이트 색상으로 유아적인 순수한 이미지를 동시에 병치시킴으로써 인간 내면 깊숙한 곳의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를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손바닥을 얼굴에 찍은 장난스럽고 유아적인 놀이의 패션메이크업은 내용이 반전된 자유로운 유희충동이 발산된 우스꽝스러움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면, 관능, 환상과 해학의 관계적 결합으로 해석되며, 우스꽝스러움과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환상과 현실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유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었고, 현실도피적인 인간의 약점은 서로 다른 다양한 소재의 도입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9〉는 2001년 S/S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의상디자이너는 조각 천을 이어붙인 듯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비대칭의 스

커트라인, 속옷을 겹옷으로 전위시킨 섹시하고 퇴폐적인 여성 이미지의 재배치, 도수 높은 안경, 그물 바디스타킹 등 파격적인 분위기로 섹시한 여비서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패션메이크업은 입술산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고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시적인 레드로 립을 표현하였으며 눈썹의 좌우대칭 구조를 파괴한 형태의 메이크업으로 통속적 웃음을 자아내는 유희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세련되고 도발적이면서 좀 요란하게 연출한 것이다. 이는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긴장의 변형에 근거한 부조리를 표현한 것이고, 또한 관능적 퇴폐주의 스타일로 성적 에너지 방출을 통해 해방의 가능성 즉 사회적 해방감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상 규칙의 위반, 현대인의 생활을 지적하고 조소, 풍자한 모습으로 기능적 측면에서의 관능과 해학의 극단적인 결합으로 해석된다.

〈그림 10〉은 2006년 Fall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으로, 중세갑옷과 전갈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패러디한 드레스이다. 이 컬렉션에서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즉 중세시대의 게임, 연극, 의상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세 갑옷을 현대적인 해석을 통하여 드레스화한 것으로, 양성애적 이미지 연출을 위해 부드러운 패브릭과 딱딱한 금속을 혼재하였다. 이는 갈리아노가 패션은 한정되어서도 예측 가능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그 예가 바로 키스톱 플레이를 로맨틱한 스타일로 재현한 것으로, 중세가면이나 갑옷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변형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테크 소재에 중세의 이미지를 그래피티한 드레스와 박쥐스타일의 헤드드레스에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 강렬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블랙아웃 마스크라, 굵고 검은 눈썹의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통해 연극적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 악마적인 요소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함으로써 공허, 무, 혼돈 등 부정적인 현실, 막다른 골목에 놓인 현대인의 총체성을 마법

또는 항상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긍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관계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헤드드레스에 응용된 박쥐가 갖는 의미는 서양에서 마녀의 상징이나 악마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녀가 박쥐로 변신하여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어느 지방에서는 박쥐(대머리생쥐)의 이름대로 박쥐가 머리카락에 접촉되면 액운이 닥치고 짧은 처녀의 머리에 닿으면 일생동안 독신으로 지내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고 믿는 전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림 11〉은 2006년 S/S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Marie Antoinette)의 프랑스 역사를 인용한 것으로, 레드, 자유, 그리고 열정적인 색상으로 마리 앙투와네트의 비운을 표현한 듯하다. 갈리아노는 이 컬렉션에서도 일상의 규칙을 위반하고자 하는 창의력과 열정, 활력을 가지고 캐워크를 연출하였다. 과거의 풍요했던 향락적인 궁정을 회상하며 낭만적인 요소와 사치스러움을 디자인 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에 적용시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동시에 비운의 분위기도 표현되어 골드색상과 레드색상의 부조화, 칼라와 벨트가 과장된 디자인 이미지와 화이트메이크업에 한 곳에 포인트를 주어 마치 눈 주위만 띠를 둘러 강하면서도 도발적인 느낌을 주어 오히려 시선을 집중시켰고, 언더라인을 레드컬러로 과감하게 표현하여 신비한 무드를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서 비운과 감상의 극적인 결합은 마치 호화스런 사치의 대명사인 루이16세와 앙투와네트의 비운으로 결론을 맺는 듯 하다. 18세기 프랑스 사교계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이 절정에 다다른 분위기를 골드와 자유의 색상인 레드의 매치로 더욱더 비운과 사치스러움의 부조화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2007년 S/S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으로, 테마는 “나비부인”이었다. 갈리아노는 이번 컬렉션에서도 일본문화의 영향



〈그림 9〉 관능과 해학의 극단적 결합  
Collezioni No. 81, p. 221.



〈그림 10〉 해학의 악마적 표현  
www.style.com



〈그림 11〉 비운과 감상의 극적인 결합  
Collezioni No. 112, p. 158.



〈그림 12〉 몽상과 관능의 오페라적 결합  
ELLE No. 9, p. 355.

을 자신 특유의 패턴 커팅과 여러 문화와 역사가 혼합된 독창적이고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무대

는 일본식 정원의 문과 계단, 사쿠라가 만발한 담장 모서리 등이 화이트 몰딩으로 형상화되었다. 샤미센

〈표 3〉 통속성의 하부구조에 의한 패션메이크업

하부범주	통 속 성		패션 메이크업	
	특 성	표현 기법	의 미	
해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희적인 재미→우스꽝스러움→통속적인 웃음→서커스어릿광대차원</li> <li>•풍자, 유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썹, 눈, 입 등을 극단적으로 과장, 왜곡, 변형, 모순, 부조화</li> <li>•장난스럽고 유아적인 형태 연출</li> <li>•이질적 요소 도입, 일상적인 규칙위반</li> <li>•유머러스한 기호와 문양의 맞상블라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해방감</li> <li>•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의의성</li> </ul>	
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렬하고 극적인 에로티시즘</li> <li>•도전적 긴장감</li> <li>•인간의 성적인 자유문제를 의식적으로 성 가시화(성에 관한 인간의 생각)</li> <li>•삶의 확장으로서의 도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망사, 레이스 등의 패브릭 소재를 얼굴에 콜라주기법</li> <li>•성적 노골화로 인한 에로틱 이미지 표현</li> <li>•자극적 장식에 의한 퇴폐적인 이미지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능미</li> <li>•도피</li> <li>•여성의 신비로움</li> <li>•에로티시즘</li> <li>•퇴폐성</li> </ul>	
환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적인 것과 대립개념(열등개념)</li> <li>•기존질서 파괴</li> <li>•무의식의 내부적 충돌들의 활성화</li> <li>•관찰자의 상상력을 자극, 공상적, 소설적,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로 인식</li> <li>•기대의 뒤집힘</li> <li>•상징적, 신화적 의미로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의식의 세계, 초현실적 이미지 표현</li> <li>•자유로운 추상적 표현</li> <li>•미완성인 듯한 이미지표현 (동화의 세계처럼 감미로움에 대한 동경, 영원한 소녀 이미지의 미성숙 감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로티시즘</li> <li>•신화적, 상징적 의미</li> </ul>	
감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된 또는 피부적 정서, 근거 없는 느낌</li> <li>•달콤한 자기 연민</li> <li>•자기애적 자의의식</li> <li>•죽음의 연극적 재현(굴욕적인 삶에 복수) / 자기소멸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반전, 페러디, 형태의 변형과 왜곡, 풍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로테스크한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 막다른 골목에 놓인 인간의 총체성을 긍정적으로 치유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부여</li> <li>•소의</li> <li>•자기도취적인 자아</li> </ul>	

연주와 함께 정면 무대가 회전하자 조각 거울 벽 사이로 비즈 자수와 오리가미를 이용한 라펠, 포켓 플랩으로 변형된 뉴욕의 페플럼 슈트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을 위해 갈리아노는 오리가미와 게다, 기모노, 오비는 물론 독특하게 분리된 어깨와 소매가 달린 사무라이의 갑옷, 삼베, 비단실을 이용한 자수 기법, 비즈 자수, 메이지시대의 그림까지 철저히 연구하였다. 특히 가죽을 손으로 하나하나 엮어 만든 사무라이 갑옷 드레스, 잉어 자수가 놓인 삼베 드레스, 비즈로 만든 꽃과 나비, 대나무와 젓가락, 부채를 헤어 액세서리로 변환시켰으며, 또한 실루엣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완벽한 바느질과 테일러링이 돋보였다. 갈리아노는 오리가미 기법과 이케바나 기법으로 일본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였다. 기모노와 오비를 변형시킨 디자인이미지에 매치한 것은 가부키식 메이크업이다. 얼굴에 화이트베이스와 파우더를 잔뜩 발라 백지장처럼 창백한 게이샤의 얼굴을 재현하였고, 핫핑크, 퍼플, 옐로 같은 색상으로 강렬한 채색을 하듯 아이 메이크업과 동양 여자의 날렵한 눈매를 표현하였다. 노출된 목덜미와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앵두같이 작은 입술로 요염한 여성미를 표출하였다. 헤어에는 꽃과 리본은 기본이고 일본식 샷갓, 부채, 분재 그리고 죽통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연상시키는 모든 오브제들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더욱 부각시켜 응용하였다. 따라서 디자인이미지와 패션메이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면 일본풍의 몽상적이고 신비한 디자인이미지와 동양의 가부키스타일의 에로틱한 분위기의 패션메이크업의 오페라적 결합으로 해석된다.

이상을 살펴 본 결과, 갈리아노 컬렉션에 표현된 패션메이크업의 통속성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갈리아노의 컬렉션에서 표현된 창조적이며 실험성이 강한 의상디자인과 패션메이크업과의 영역사이의 관계를 대중예술의 통속성의 하

부구조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뷰티와 패션의 적절한 조화를 규명함으로써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메이크업이 패션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미적 특성과의 연계성을 재정립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통속성의 특징적 요소인 웃음, 성, 몽상, 눈물 등의 요소들이 단독구성 혹은 그것들의 합목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의상디자인과 패션메이크업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웃음의 해학성은 갈리아노 자신이 느끼는 통속적인 웃음을 풍자와 유머를 통해 자신의 돈키호테적 방식으로 표현한 놀이적이며 우스꽝스러운 디자인 특성과 유사한 연계성이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패션메이크업을 말한다. 패션메이크업의 웃음의 해학성은 기대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의외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을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의 해학적 표현에 의해 극복되면서 유발된 웃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어른세계의 경직되고 긴장된 역할에서 벗어나 어린시절에 대한 향수로서 동심의 세계와 환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해방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성의 관능성은 의식적으로 성을 가시화시키는 강렬하고 극적인 에로티시즘의 디자인을 통해 삶의 확장으로서 도피조의 의미를 내포한 디자인 특성과 유사한 연계성을 보이는 에로틱한 패션메이크업을 말한다. 패션메이크업의 성의 관능성은 성적 노골화로 인한 에로틱 이미지를 통속적인 여성미로 강조, 이미지는 요염하고 자극적이며 대담하고 육감적인 연출을 위해 성에 부과된 개인적이며 문화적인 제한들을 오히려 강렬하고 극적인 기술적 처리방식으로 표현된 메이크업으로 에로티시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몽상의 환상성은 갈리아노 본인 스스로가 꿈과 내 오리엔탈리티 사이에서의 체험을 통해 기존질서의 파괴,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일탈해 표현된 기상천외하고, 비합리적인 디자인특성과 유사한 연계성이 보이는 드리미한 패션메이크업을 말한다. 패션메이크업의 몽상의 환상성은 현실세상의 환상적인 것을 강화시킨 무의식의 세계, 초현실적 이미지, 미완성인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환상적으로 꿈꾸는 듯한 표현을 위해 금속류나 인조보석류

등의 소재를 얼굴에 부분적으로 콜라주한 메이크업으로 상징적 또는 신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눈물의 감상성은 갈리아노가 과거양식의 현대적 해석으로 재현한 디자인을 통해 인간본능, 내적 욕구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느낌, 슬픔과 비탄의 자기도취적 포즈, 달콤한 자기 연민 등을 자기애적 자아의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의 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감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특성과 유사한 연계성이 보이는 새드니스한 메이크업을 말한다. 패션메이크업의 눈물의 감상성은 광택과 윤기가 없어보이도록 표현하여 우울하고 쓸쓸하게, 창백하고 그늘져 보이는 메이크업, 특히 슬픈 눈과 형클어진 머리, 보형물을 삽입한 큰 헤어스타일, 슬픔과 비탄의 자기도취적 포즈 등에 허황된 사치스러움의 비애와 달콤한 고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갈리아노의 컬렉션에서 실험성이 강한 의상디자인과 패션메이크업의 영역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패션과 뷰티사이의 연계성은 물론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규명하였고 이로써 메이크업도 예술적으로 다양한 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분야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앞으로 뷰티는 의상디자인과 더불어 새로운 조형적 표현과 창조적인 발상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예술의 새로운 장르로 정착될 것이라 사려되며 더욱더 미적측면에서의 메이크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 참고문헌

- 1) 패션쇼와 컬렉션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즉, 컬렉션은 파리의상조합위원회에 소속된 개성과 창의력 이 뛰어난 파리의 오프 꾸뛰르 패션디자이너들이 앞으로의 패션을 제안하는 반면, 패션쇼는 이미 패션트 랜드로 일반화되고 대중화로 패션을 재구성 재창조하여 소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을 패션쇼의 포괄적인 개념의 한 부분으로 보고, 앞으로 컬렉션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2) 장안화, 박민여 (2004). 현대패션쇼의 대중문화적 특성 (제1보). 복식, 54(4), p. 2.  
 \_\_\_\_\_ (2004). 현대패션쇼의 대중문화적 특성 (제2보). 복식, 54(5), p. 2.
- 3) 박성봉 (1995). 대중예술의 미학. 서울: 도서출판 동연. p. 23.
- 4) 장애란 (2006). John Galliano 작품에 표현된 웃음의 미학. 복식, 56(3).
- 5) Browne, R. B.(1975). *Popular Culture : notes toward a definition*, R. B. Browne & D. Madden (eds.), pp. 205-207
- 6) McQuail, Dennis (1980). *Towards Society of Mass Communications*. London: Collier Macmillan, p. 22.
- 7) 한편으로는 통속적인 것, 다른 한편으로는 고상한 것.
- 8) 박성봉 편역 (1994). 대중예술의 이론들. 서울: 도서출판 동연, pp. 54-56.
- 9) 강경화 (2003). 메이크업총론. 서울: APC, p. 158.
- 10) 최은지 (2000). 아방가르드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8.
- 11) 존 갈리아노는 자신의 이름과 디오르의 수석디자이너로서 1년에 12회의 컬렉션을 개최하고 있다. 갈리아노 자신의 이름으로 개최된 컬렉션은 전위적이고 해체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 반면, 크리스찬 디오르의 이름으로 개최된 컬렉션은 디오르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포스트모던적 특징인 의복형태의 해체, 분열을 통한 비정형화, 부조화, 콜라주, 과대장식 등이 표현된 환상적이며 감동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Eastmann, Max (1936). *Enjoyment of Laughter*. New York: Simon & Schuster, p. 3.
- 13) Freud, Sigmund (1978).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he Standard Edition*, 21, London: The Hogarth Press, p. 140.
- 14) Morawski, Stefan (1978). *Inquiries into the Fundamentals of Aesthetics*. Cambridge & London : The MIT Press, p. 386.
- 15) Rabkin, E. S. (1976). *The Fantastic in Literature*. Princeton Univ. Press, p. 41.
- 16) Rottensteiner, Franz (1978). *The Fantasy Book : an history from Dracula to Tolkien*. New York: Collier Books, p. 9.
- 17) Schlobin, R. C. (1979). *The Literature of Fantasy: a comprehensive annotated bibliography of modern fantasy fiction*.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p. xxix.
- 18) 환상소설의 독자는 자신이 상식적인 현실성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불가능한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이중성에서 독자의 마음은 실제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의 동시적 체험을 하며 자유롭게 유희한다는 것이다.
- 19) Hauser, Arnold (1968). *The Social History of Arts*. 4, London: Routledge & K. Paul, p. 57.
- 20) Brintlinger, Patrick (1983). *Bread & Circuses: theories of mass culture as social decay*, Cornell Univ. Press, p. 259.
- 21) “여자에겐 수많은 캐릭터와 무드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때론 부드럽고 페미닌하지만, 한편으로 강하고 결정적이죠. 이렇게 반대성향들이 어우러지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페트리 선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에서 말한 바에서 알 수 있다.